

여름 라면 춘추전국시대... 무더위 속 14國 '탱탱한' 전쟁

롯데마트, 여름 할인판매 행사 진행
 쫄면·막국수·콩국수 등 품목 다양
 비빔면 84%→50.9%로 비중 줄어

여름 시즌을 맞아 다양한 라면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여름 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다양한 여름라면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들어 여름 라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에서 판매중인 여름라면은 총 14개 품목이다. 이는 지난해 10개 품목과 비교하면 40% 증가한 수치다. 올해에는 '오투기 진짜쫄면', '오투기 춘천막국수', '팔도 막국수 라면', '삼양 중화비빔면', '풀무원 생면식감 탕탕 비빔쫄면' 등 총 5개 품목의 여름라면이 새로



고객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여름라면을 고르는 모습 /롯데쇼핑

구분	2017년 5~6월	2018년 5~6월
비빔면	84%	50.9%
쫄면	-	32.2%
메밀소바	9.8%	9.4%
막국수	-	5.5%
콩국수	6.2%	2.0%

/자료=롯데쇼핑

게 출시됐다.

여름 라면의 카테고리도 확대됐다. 올해에는 여름 라면 신상품이 활발하게 출시되면서 비빔면, 냉면, 콩국수를 포함해 쫄면, 막국수까지 카테고리가 확대됐다. 특히 쫄면과 막국수는 출시 이후 큰 인기

를 끌고 있다. 쫄면은 올해 출시된 이후 지난 두 달간(5~6월) 전체 여름라면 매출의 32.2%를 차지했고, 막국수는 5.5%를 차지했다. 반면, 비빔면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여름라면 전체 매출 중 구성비가 84%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50.9%로 줄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여름 라면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롯데마트는 여름라면을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11일까지 '오투기 진짜쫄면', '오

뚜기 콩국수 라면', '오투기 함흥비빔면' 등 인기 여름라면을 2등급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팔도 비빔면(5인)'은 2980원, '팔도 막국수라면(4인)'은 3480원, '풀무원 탕탕비빔쫄면(4인)'은 3980원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여름라면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다양한 여름라면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오 롯데마트 가공일상 MD는 "매년 여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시원하게 먹는 여름 라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상품군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라며 "올 여름에는 다양한 여름라면을 즐길 수 있는 상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자동차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라 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조립라인 근로자들의 모습 /쌍용자동차

사무직도 선택·탄력적 근로제 도입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하는 근무시간 단축 체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차 업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생산직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곳도 있었지만 사무직 종사자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새롭게 도입한 업체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 직원이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집중근무를 하고 있다. 아침출근 시간은 8시~10시 사이다. 전 날 야근을 했을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2, 3년 전부터 하루 8시간 근무체제로 운영 중이다. 1, 2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는 지난 2006년부터 주간 2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사무직은 2일부터 주 52시간 안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등 3가지 체제로 시행 중이다.

한국지엠은 오전 8시에 출근에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다만 사무직을 제외한 타 부서들은 아직 준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다른 부서들도 최대한 근로시간 단축 시스템에 맞추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는 지난 4월 2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 하고 있

다. 1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40분부터 밤 12시30분까지 8시간씩 작업을 한다. 2조는 추가 잔업 1시간만 더해진다. 주야2교대(11+9.5시간)에서 주간2교대(8+9시간)로 근무형태가 전환되면서 근로자1인당 일평균 근로시간은 10.25시간에서 8.5시간으로 단축됐다. 희망자에 한해 야간근무도 허용한다.

수입차 업체인 토요타코리아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선택적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8시~10시 사이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다.

BMW코리아는 각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출근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었다. BMW관계자는 "영업 대리점 직원의 경우 개별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사무직 직원들은 전 주 52시간 근로체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직원 수가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벤츠 코리아는 이미 유연근무제(오전9시~오후6시 근무, 오전7시~오후4시 근무, 오전10시~오후7시 근무), 패밀리 데이(연휴 시작 전일 오전만 근무) 등 근무 관련 다양한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달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체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관련해 어떤 상승효과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연우 기자 ywj964@

반도체 호황 올해가 절정... 中 물량폭탄이 변수

2~3년 슈퍼사이클 하향세 예측도
 생산량 공급과잉엔 상황 변화될 것

최근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호황에 맞춰 사상최고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6월 기준 연간 전망의 50% 달성이 예상되며 연간 목표치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이후 중국업체들이 양산을 앞두고 있어 곧 물량이 넘쳐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 등이 고용량 메모리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성장의 결실을 맛보고 있다. 현재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58%에 이른다. 한국업체는 경쟁하는 외국업체보다 기술력에서 2~3년 정도 앞선다는 평가도 받는 만큼 당분간 시장 지위를 빼앗길 가능성도 적다.

하지만 이런 호황도 올해 하반기에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2~3년 주기로 오는 슈퍼사이클이 이제 하향세로 접어들 때가 됐다는 거시적인 예측이 첫번째 근거다. 여기에 중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라인. /뉴스1

국업체들이 3분기부터 벌일 치킨게임으로 인해 시장 공급과잉이 될 거란 현실적 근거도 겹친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올해 호황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단가 면에서 D램(DDR4 4Gb 기준) 가격이 작년 6월 3.09달러에서 올해 3월 3.81달러, 4월 3.94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지난달에는 3.94달러로 유지했다. 여기에는 전세계 반도체 수요 가운데 60%를 담당하는 중국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이 작용했다는 업계의 분석이 있다. 중국 정부는 세계 시장 1~3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

크론 3사가 D램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하며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발간한 시장 전망 보고서는 올해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12.4%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또한 내년에는 증가율이 4%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호황이 공급부족에서 온 만큼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면 곧바로 호황도 끝나갈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하반기 완공될 중국 기업의 메모리 생산량이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최대 15.2% 증가”

재정개혁 권고안 ‘일문일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고가(高價) 1주택자의 부담도 최대 15.2% 증가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22.1%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은 조세분야 과제 4건, 예산분야 5건으로 구성됐다.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다.

다음은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중 다수안으로 채택되진 못했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에 대해서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 중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수로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로 했다.”

-중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중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병호 조세소위원회장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중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